

Here in chapters 9 and 10 of Romans, Paul puts two very important truths side by side: divine sovereignty and human responsibility. In chapter 9 we have seen that if anyone is saved at all, it is God's doing. It is God who takes the initiative - it is he who is sovereign in the matter of our salvation. He chooses who will be saved - and it is not because of anything that is in us now, or any potential he may have foreseen. It is purely grace and love - there is no other explanation. It is grace, not race; it is faith, not physical descent; it is mercy not merit; and it is God's choice, not ours.

But as we come to the end of chapter 9 and move into chapter 10, Paul argues human responsibility. Why do the Jews not believe in Jesus? Why have they, of all people, rejected their own Messiah? In all his mission journeys as Paul comes to a new town or city, he goes first to the Jewish synagogue. Yet almost every time, as soon as he starts talking about Jesus, the Jews throw him out. Why don't they believe? Paul gives 4 reasons. Let's go through them and see how they apply to us, so that we do not make the same mistake ourselves.

1. Stumbling Over the Foundation

The first reason is at the end of chapter 9: they had a foundation, but they stumbled over it: "They stumbled over the "stumbling stone." As it is written, "See, I lay in Zion a stone that causes men to stumble and a rock that makes them fall and the one who trusts in him will never be put to shame". (vv. 32b-33). Paul pictures Zion as a construction site. As the workmen busily go about their work, they keep tripping over a huge stone. Nobody knows what it is doing there or where it came from, so in the end they just toss it out. But it is the cornerstone and God put it there. And not only did he put it there, but he told them he was going to put it there - he kept promising them a Messiah. This cornerstone is the keystone in God's plan to save the world, and the Jews have stumbled over it and tossed it aside. How tragic. They have tossed it aside and the Gentiles - the non-Jews, you and I with no Bible background to speak of, people who are not particularly looking for Jesus - we have stumbled across him.

Look at vv. 30-32 of chapter 9: "What then shall we say? That the Gentiles, who did not pursue righteousness, have obtained it,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but Israel, who pursued a law of righteousness, has not attained it. Why not? Because they pursued it not by faith but as if it were by works. They stumbled over the "stumbling stone." Yesterday, I was in the supermarket and as I turned into the aisle where the bread is, a man was trying to reach the rye bread on the top shelf. But he was too short; even though he jumped, he couldn't reach it. I had to get it

로마서 9-10 장에서 사도 바울은 2 개의 아주 중요한 진실을 나란히 언급합니다: 그것은 신성한 주권과 인간의 책임입니다. 9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으로 누구든 구원받는 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십니다-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받을 무엇이 있다던지 잠재적으로 아직 주님이 보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은 전적으로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외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이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지 육체적 혈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이지 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9 장 끝부분에서 10 장으로 넘어갈때, 바울은 인간의 책임에 대해 논쟁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이들의, 메시아를 거절했나요?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에서 그는 새로운 타운이나 도시로 갔을때면 먼저 유대 회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를 시작하면 유대인들은 그를 내 쫓았습니다. 왜 그들은 믿지 않나요? 바울은 4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자,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봅시다.

1. 기초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9 장 끝에 나옵니다: 그들은 기초가 있었으나 그것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기록된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32-33 절). 바울은 시온을 건축부지로 묘사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일 하기 위해 바쁘게 갈때 그들은 큰 돌에 걸려 자꾸 넘어집니다. 그 돌이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치워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퉁이 돌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것을 그곳에 두신것뿐 아니라 그것을 거기에 둘거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퉁이돌이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고 유대인들은 그것에 걸려 넘어져 결국 그것을 치워버렸습니다. 비극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치워버렸고 유대인이 아닌 성경의 역사가 없고 특별히 예수를 찾지 않았 저와 여러분같은 이방인들이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9 장 30-32 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어제 저는 슈퍼마켓에 갔었는데 빵 코너에 갔을때에 한 남자가 제일 윗칸에 있는 호밀빵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빵을 잡으려고 뛰어도 보았지만 그는 너무 작았습니다. 제가 그를 위해서 그 빵을 집어 주었지요.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저 너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높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도달할수 없습니다.

<p>for him. What Paul is saying here is that the Law is beyond our reach. It is too high - we cannot attain it. Jesus shows us in the Sermon on the Mount, doesn't he, that the Law is not just about external behaviour? NO, it is about the attitudes of our heart - our pride, greed, lust and envy. If I want to make myself right, I am never going to be able to do it. But the great news of the gospel is that God has given us in Christ the righteousness that the Law requires of us,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so that there may be righteousness for everyone who believes" (Romans 10:4).</p> <p>The mistake is to pursue the Law as if it were a work, something you can attain yourself rather than by faith. That is the mistake the Jews made. Jesus is the way to get right with God. The Law was never meant to be an end in itself - it was always meant to point to Jesus as its destination. But the Jews stopped at the signpost. The Law was pointing to Jesus, encouraging them to go on to the great provision God was making for their salvation, but they stopped short. Jesus is the only human being who has ever kept God's Law perfectly, and he is the only way to get right with God. He lived a perfect life of obedience to his Father's will - it was not beyond him or out of his reach.</p> <p>And so he is the "end of the Law" in that sense. And at the same time he took the punishment for our breaking of God's Law. Paul says in Galatians, "All who rely on observing the law are under a curse, for it is written, "Cursed is everyone who does not continue to do everything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 (3:10). Jesus took that curse upon himself on the tree, and "Anyone who trusts in him will never be put to shame." (Romans 10:11). How encouraging those words are! Surely one of the things most frightening about Judgment Day is the embarrassment of it - to think of every secret thought, every hidden motive coming out on that Day. None of us wants that. But the wonderful thing is this, namely,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Jesus, who calls upon the name of Jesus, will not be put to shame.</p> <p>So Israel's failure has to do with their failure to understand who Jesus is. They have stumbled over the stumbling stone, tripped over the keystone in God's plan of salvation. They have missed the righteousness that Jesus alone can bring, and pursued a righteousness that they can never attain. Let us make sure that we do not make the same mistake.</p> <p>2. <u>A Misdirected Zeal</u> Secondly, they had a zeal that was misdirected: "Brothers, my heart's desire and prayer to God for the Israelites is that they may be saved. For I can testify about them that they are zealous for God, but their zeal is not based on knowledge." (Romans 10:1-2). Given the choice, whom would you prefer to operate on you, an enthusiastic medical student or a skilled</p>	<p>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이 단지 외적 행위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 우리의 교만, 탐욕, 정욕, 시기를 말합니다. 만약 제 자신이 정의롭기를 바란다면 저는 결코 그리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위대한 소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로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4)</p> <p>실수는 믿음으로가 아닌 우리가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율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잘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나님과 화해케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율법은 결코 그 끝이 없습니다-율법은 항상 예수님이 그것의 목적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내 표지판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그들이 가도록 격려했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전에 멈춰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수 있으신 유일한 분이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그것은 그분의 능력밖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점에서 그분은 율법의 끝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것들을 위해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 3:10)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롬 10:11)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분명히 심판의 날에 가장 무서운 것중 하나는 당황스러움 일 것입니다-우리의 비밀스런 생각들과 숨겨진 동기들이 그날에 드러나는 것 말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멋진 것은 다시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수치를 당치 않을 것입니다.</p> <p>이스라엘의 실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들은 부딪칠 돌에 부딪쳤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핵심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수 있는 의로움을 놓쳤고 그들이 결코 도달 할 수 없는 의로움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합시다.</p> <p>2. <u>잘못된 열정</u> 둘째로, 유대인들은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른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10:1-2) 여러분이 선택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열정적인 의대생과 노련한 전문의 중에 누구에게 수술을 맡기고 싶으십니까? 아는 것이 없는 열정은</p>
--	--

surgeon? Zeal without knowledge can be very dangerous. Paul himself is proof of that. He was a religious fanatic who sincerely believed that he was doing God's will. He separated children from their parents, he destroyed churches, he imprisoned and murdered Christians. But he was wrong. People say, "It doesn't matter what you believe as long as you are sincere." That is absolute nonsense! Sincerity is never good enough, because you can be sincerely wrong, and you cannot afford to be wrong about Jesus.

The Jews had zeal, but it was misdirected, because they were trying to establish their own righteousness. Why do people make that mistake? The root cause is pride. It is said that George Bernard Shaw once attended an Easter Mission in England. As the speaker explained the substitutionary death of Jesus on the cross for sinners, he interrupted, "I'll carry my own sins, thank you very much." What a fatal mistake, and what a fearful prospect, having to carry your own sins and come face to face with the holy God!

3. They Had a Word from God, But They Complicated It

The third reason for Jewish unbelief is found in vv. 5-13 - they had a word from God, but they complicated it. Here Paul quotes from Moses' last sermon, recorded in Deuteronomy 30, where he sums up everything he has said to the people of Israel. Moses puts himself into this sermon - he preaches to them as a dying man to dying men. "Don't go the way of trying to establish your own righteousness," says Moses. "That is a dead end." Describing the righteousness that is by the law, Moses says in 10:5, "The man who does these things will live by them." But the point is: Who can do these things? To try and establish your own righteousness is the wrong way, says Moses, but he spells out the right way in the following verses: "Do not say in your heart, "Who will ascend into heaven?" (that is, to bring Christ down) or "Who will descend into the deep?" (that is, to bring Christ up from the dead). But what does it say? "The word is near you; it is in your mouth and in your heart" that is, the word of faith we are proclaiming" (10:6-8).

A story is told of Toscanini, the great conductor of the Philadelphia Philharmonic Orchestra. One night, after an almost perfect performance of Beethoven's Fifth Symphony, a captivated audience applauded endlessly. When the applause finally concluded, he turned restlessly to the orchestra and whispered, "Ladies and gentlemen, you are nothing, and I am nothing, but Beethoven - Beethoven is everything!" It is not about your performance. No, it is about God's provision in Christ. You do not have to climb up into heaven, says Moses, because God has sent his Son down from heaven. Neither do you have to go down into the depths to claw your way up out of the mess that you have got yourself into, because Christ has been there too.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진실로 믿었던 광신도였습니다. 그는 부모들로부터 그들의 자녀들을 떼어놓았고 교회를 파괴 했으며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틀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진지하다면 네가 믿는것이 무엇이든 문제가 되지 않아"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성실함은 결코 충분히 좋은 것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신실하게 틀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틀려서는 안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들의 의로움에 기초를 세우려 했기에 그들이 가진 열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합니까? 그것은 교만에 뿌리를 둡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잉글랜드에서 열린 부활절 미션에 참석했습니다. 연설자가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대신한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을 때 그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죄를 짊어질것이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간다니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이고 두려운 시각입니까!

3.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을 복잡하게 했습니다.

믿지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세번째 이유는 5-13 절에서 볼수 있습니다-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 바울은 신명기 30 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말했었던 모든 것들을 요약한 그의 마지막 설교를 인용합니다. 모세는 이 설교에 그 자신을 집어넣습니다-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어가는 이가 죽어가는 이들에게 전하는것처럼 설교합니다. "너 스스로의 의를 쌓기 위해 애쓰지 마라." 모세는 말합니다. "그것의 끝은 사망이다." 율법에 의한 의를 묘사하면서 모세는 10:5 에서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러나 그것의 요점은: 누가 이런 것을 할수 있는가? 스스로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의 말씀에서 옳은 길을 설명합니다: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입니다) 또는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10:6-8)

필라델피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위대한 지휘자 토스카니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날 밤 베토벤의 제 5 번 교향곡을 거의 완벽하게 연주한 후에 그 공연에 매료된 한 관중이 끝이 없는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 갈채가 마침내 끝이 났을 때 토스카니니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돌아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토벤, 베토벤 그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한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가 말할길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그의 아들을 보내셨기에 여러분은 천국에 가기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기위해 애쓸 필요도 없고, 지옥의 끝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셋째날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져올리셨습니다. 만약에 저와

descended into hell. And on the third day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If you and I can atone for our sins, why did Jesus need to descend into hell on the cross? All that is needed God has provided. All you need to do is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You just have to agree with God -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God vindicated him, God accepted his sacrifice, God exalted him. If you believe that in your heart, why not confess it with your mouth? That is the way of salvation. Don't complicate what God has made simple.

But surely, you say, there must be something I need to do? Surely I need to clean up my life a little, to make some sort of improvement? No, you do not! But there is so much in my life I need to sort out first. No, there is not - it is salvation we are talking about, not self-help. But I need to sort out my theology and do a bit more thinking. No, you are not saved by correct theology - it is the living Christ who saves you. Let him sort your theology out for you - let him become your teacher, for he dwells in you by his Spirit. When Paul begins his first letter to the church in Corinth, he describes Christians as "all those everywhere who call o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1 Corinthians 1:2). That is the whole Christian life. It is to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You do not ever stop doing that. You trust in the promise,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Romans 10:13).

Are you addicted to some destructive pattern of living? Don't you want to be set free? You cannot free yourself - you are caught in "the sin that so easily entangles" (Hebrews 12:1). But you can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Are you an angry person, losing it with your family, under great pressure at work or study? Are you scared or anxious? Are you despairing? Just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It is not complicated. If you need rescuing, then just cry, "Lord, help me".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and you will be saved.

On one occasion, when President Abraham Lincoln had to sign some momentous document that had great consequences, he spent a whole night pacing the floor of his study. But, in the end, of course, all he had to do was put his signature to it. To sign that document, to call on Jesus, is a very simple thing to do: "The word...is in your mouth", on the tip of your tongue. But, of course, calling him into your life as your Lord and Saviour will have momentous consequences for you. In Romans 9, nobody becomes a Christian unless God calls them. In Romans 10, an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 not "may be" - will be saved.

4. They Have Messengers Sent to Them
The last reason Paul gives for why the Jews do not believe is that they have messengers sent to them. Have you noticed how many quotations from the Old Testament there are in Romans 9 and 10? Here in

여러분이 우리들의 죄를 속죄할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지옥으로 내려가셔야 했나요? 이 모든것은 하나님에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음에서 그를 살리셨고 예수님의 죄 없음을 보이셨고 그의 희생을 받아들이셨고 그를 높이셨음을 인정해야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것을 믿는다면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하게 만드신 것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은, 내가 무언가 해야 할게 있지 않을까? 당연히 내 삶을 좀더 깨끗이하고 좀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할지 모를것입니다.아니요,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구원이지만 스스로의 도움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신학을 해결할 필요가 있고 좀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정확한 신학으로 구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신학을 해결하게 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선생이 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첫번째 편지의 시작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로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2)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13)

여러분은 삶을 파괴하는 어떤 패턴에 중독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여러분은 언제나 쉬운 죄에 잡혔습니다. (히 12:1)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화가 났고 당신의 가족들에게 무례하고 직장과 학업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나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만약 구원이 필요하다면 주님 저를 도와 달라고 울부짖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언젠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떤 중대한 사안에 싸인을 해야만 했을 때 그는 밤새 그의 서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가 해야만 했던것은 그것에 사인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서류에 사인을 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 "말씀이 너의 입에 다있다" 너의 혀 끝에 있다. 그러나 물론 구원자 주로써 그분을 당신의 삶에 찾는 것은 여러분에게 중대한 결과를 줄 것입니다. 로마서 9 장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기 전까진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다고 합니다. 로마서 10 장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어찌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4. 그들은 그들에게 보내졌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마지막 이유는 그들은 그들에게 보내진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9, 10 장에 얼마나 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인용 되었는지 여러분은 눈치 채셨습니까? 로마서 10:12-21 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많이 볼

Romans 10:14-21 we have a cluster of them. It is not as if the Jews have not heard, for God sent his messengers to them time and time again - but they have refused to listen.

Why do people not believe? Is it because they have not heard? So often when you are trying to talk to someone about Jesus, they say, "But what about those who haven't heard?" In answer to that question Paul would say, "Well now, I don't know who you are talking about. Who are these people?" He quotes from Psalm 19: "Did they not hear? Of course they did: "Their voice has gone out into all the earth, their words to the ends of the world" " (Romans 10:18). In the first half of Psalm 19 David speaks about the testimony of the creation to God its Creator and asserts that no one can say that they have not heard. Paul has made the same point himself in Romans 1:19-20, hasn't he? The problem, as Paul says in Romans 1:18, is not that they have not heard and do not know the truth, but that they have suppressed the truth.

But there is more than that. Psalm 19 goes on to speak of the law of the Lord which converts the heart. God's voice in creation leaves us without excuse, but it does not convert us. What about the message of salvation in Jesus Christ? Paul had done his part to see that that message went out to the world of his day: "From Jerusalem all the way around to Illyricum (modern-day Albania), I have fully proclaimed the gospel of Christ" (Romans 15:19). Paul's answer to the question, "What about those who have not heard?" is "Well, let us make sure that they do hear!" Election and evangelism go hand in hand. Romans chapters 9 and 10 belong together. God chooses people, but how do they come to believe in Jesus? "How, then, can they call on the one they have not believed in? And how can they believe in the one of whom they have not heard? And how can they hear without someone preaching to them? And how can they preach unless they are sent?" (Romans 10:14-15).

The reason people believe and trust in Jesus is because they have heard the gospel message. And the reason they have heard the message is because someone has come to preach, to proclaim, and explain it to them. Isn't it true that the only reason you and I know this message is because someone has made the effort to do that for us? Many pioneer missionaries of the past packed up all their earthly belongings into a coffin. They did not need a suitcase because they were not coming back. They were going to a place where they would almost certainly die, but they went nevertheless because they had this message that people needed to hear. "As it is written,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Romans 10:15). Do you have beautiful feet? Faith comes by hearing the Word of Christ. Hearing comes by preaching, proclaiming that Word. Preaching, proclaiming comes when Christians get off their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들었지만 거절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믿지 않나요? 듣지 못해서 입니까? 종종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할 때 그들은 "그러나 그것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뭐지?"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 질문의 대답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 할 것입니다. "글쎄, 나는 당신이 말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군요. 그들이 누구 입니까?" 그러면서 시편 19 편을 인용합니다."그들이 듣지 못했었나요? 아뇨, 그들은 당연히 들었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시편 19 장의 처음 절반 부분은 다윗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창조의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고 그것을 듣지 못한 자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19-20 에서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18 절에 바울이 말하듯 그 문제는 그들이 진리를 듣지 못했거나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진리를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9 편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 계속 이야기 합니다. 창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는(일반계시) 우리에게 예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세지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 메세지가 그가 있었던 때에 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그의 임무를 다 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투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롬 15:19). 듣지 못한자들은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우리로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자!" 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복음전도는 같이 전해집니다. 로마서 9, 10 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선택하시지만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전파하리요?"(롬 10:12-15)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유는 그들이 복음의 메세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메세지를 들었던 이유는 누군가가 그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메세지를 알고 있는 하나의 이유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많은 선구적 선교사님들이 이땅위에서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것이 아니었기에 짐가방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대부분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역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들어야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 10:15)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에서 옵니다.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한 소파에서 일어나 복음의 신을 신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에서 옵니다.

<p>couches, put on their gospel boots and go and tell people about Jesus, their Saviour and Lord.</p> <p>What happens when Christians do that? God stretches out his arms to the lost. That is the picture we have in verse 21 isn't it? Has God finished with the Jews? Does he fold his arms and turn his back on them? No! "All day long I have held out my hands to a disobedient and obstinate people." That is the way we are to share the gospel with others - freely offering this gospel to all, with arms outstretched, welcoming people to Jesus. And as we do that, something else happens. In most translations, the second sentence of v. 14 reads as in the NIV: "And how can they believe in the one of whom they have not heard?", but a better translation is: "How can they believe in the one they have not heard?" That is what preaching is about - Christ coming to us. As Paul said to the Ephesians, this Christ, who has broken down the middle wall of partition between Jew and Gentile and made peace through his death on the cross - "He came and preached peace to you who were far away" - you Gentiles in Ephesus (Ephesians 2:14-18). How did Jesus Christ do that? He never went to Ephesus. No, but he came to the Ephesians through the Spirit-anointed gospel preaching of the apostle Paul. How will people believe, if they do not hear Jesus speaking to them and calling them through the preaching and proclaiming of the word by we Christians?</p> <p>So Paul challenges us - be a Romans 9 and a Romans 10 Christian, thoroughly convinced that God sovereignly chooses <u>and</u> calls people to himself, <u>and</u> utterly persuaded that he does so as people such as you and I obediently go out at the call of God to proclaim Jesus to those who don't know him. Are you wondering if you have beautiful feet? Is God calling you to be a missionary, a witness and ambassador for Jesus Christ? He almost certainly is. As far as Paul is concerned, you are either a missionary or you are a mission field! <u>Amen</u></p>	<p>그리스도인들이 그리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팔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펼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21 절에서 보는 내용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행하실 일들이 끝났나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퍼셨던 팔을 접으시고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것은 우리가 다른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 자발적으로 두 팔을 활짝 펴서 이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나누고,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부분의 번역에서 14 절 후반부는 NIV 에서 처럼:"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로 번역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그 스스로에 대해서 말한것을 듣지 못한 것을 어찌 믿으리요" 로 번역하는 것이 좀더 낫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것이 이것이 설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직접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칸막이를 치우고 평화를 이루었던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말했을 때-"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이여(엡 2:14-18).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나요? 그는 결코 에베소를 방문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으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에 가셨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믿을까요 만약에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지 않아 그들이 예수그리스도가 그들을 부르고 말씀하고 계신것을 들을수 없다면 말입니다?</p> <p>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로마서 9, 10 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백성들을 그에게 부르신다고 철저히 확신하였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 순종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선포하도록 완전히 설득되었던 그들처럼 되라고 도전을 줍니다. 아름다운 발을 가지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대사로 부르셨나요? 그분은 진정 그리하십니다. 바울이 생각하듯이, 여러분은 선교사로 또는 선교지로 부름 받았습니니다. <u>아멘</u></p>
--	---

Prepared by Rev. Grant Lawry,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